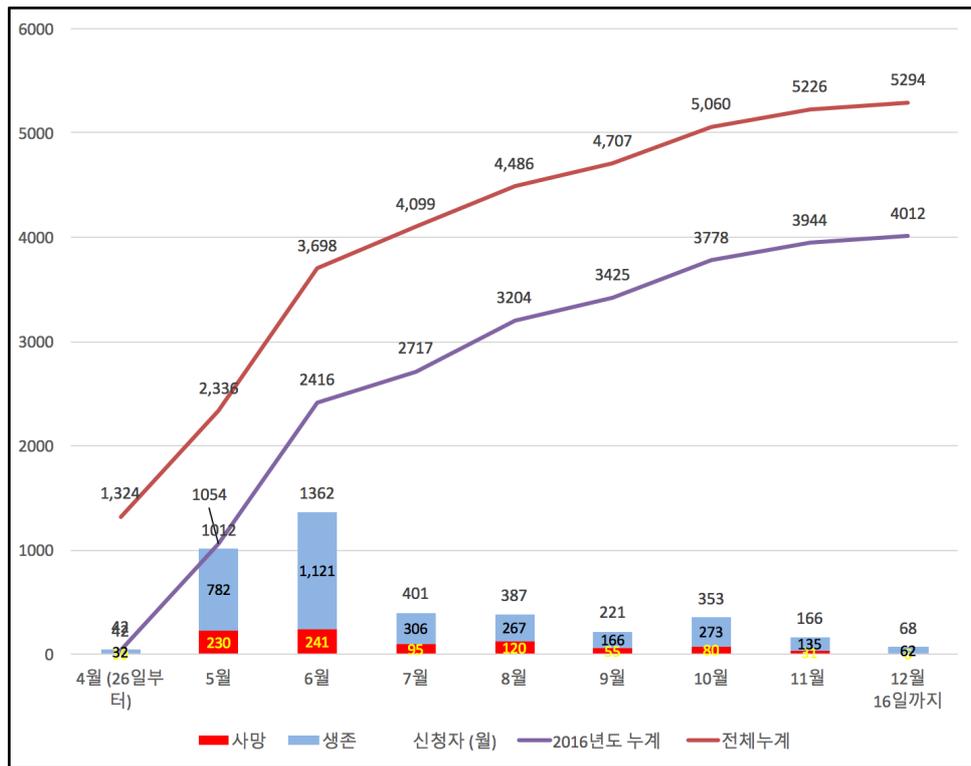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올해에만 4천건 넘었다

12 월 16 일까지 4,012 건 피해접수
 이 중 사망은 868 건, 생존 3,144 건

5 년간 전체는 5,294 건, 사망 1,098 건
 여전히 잠재적 피해자의 1% 내외 수준

특별법 제정해 모든 피해자 찾아내고, 피해대책 세워야



<그림, 2016 년도 월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흐름과 전체누계>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목차

- 1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전체 현황 (2011 년~2016 년 12 월 16 일까지)
 - 2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2016 년도 현황 (12 월 16 일까지 현황)
 - 3 언론보도와 피해신고 관련성
 - 4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전국 지역별 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 현황)
 - 4.1 전국 현황
 - 4.2 경기 현황
 - 4.3 서울 현황
 - 4.4 인천 현황
 - 4.5 부산 현황
 - 4.6 대구 현황
 - 4.7 경남 현황
 - 4.8 경북 현황
 - 4.9 대전 현황
 - 4.10 전북 현황
 - 4.11 충남 현황
 - 4.12 충북 현황
 - 4.13 광주 현황
 - 4.14 강원 현황
 - 4.15 전남 현황
 - 4.16 울산 현황
 - 4.17 세종 현황
 - 4.18 제주 현황
 - 4.19 해외 현황
 - 5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찾기 찾아내고 피해대책 세워야 한다.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전국의 각 지역환경운동연합에서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거나 피해신고 및 문의를 받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판정 전체 현황 (2011 년~2016 년 12 월 16 일까지)

1.1 **2016 년 12 월 16 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5,294 건이다.** 이는 2011 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모두 4 차례에 걸쳐 피해신고를 받았다. 2011-2012 년과 2016 년초 정부가 신고를 받지 않는 동안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신고를 받았고 이후에 정부로 모두 일괄 접수했다.

1.2 **사망자는 모두 1,098 명으로 전체의 20.7%이다.** 피해신고자 10 명중 2 명꼴로 사망사례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생존자는 3,144 명이다. 사망의 경우 전체 사망의 79%가 올해에만 신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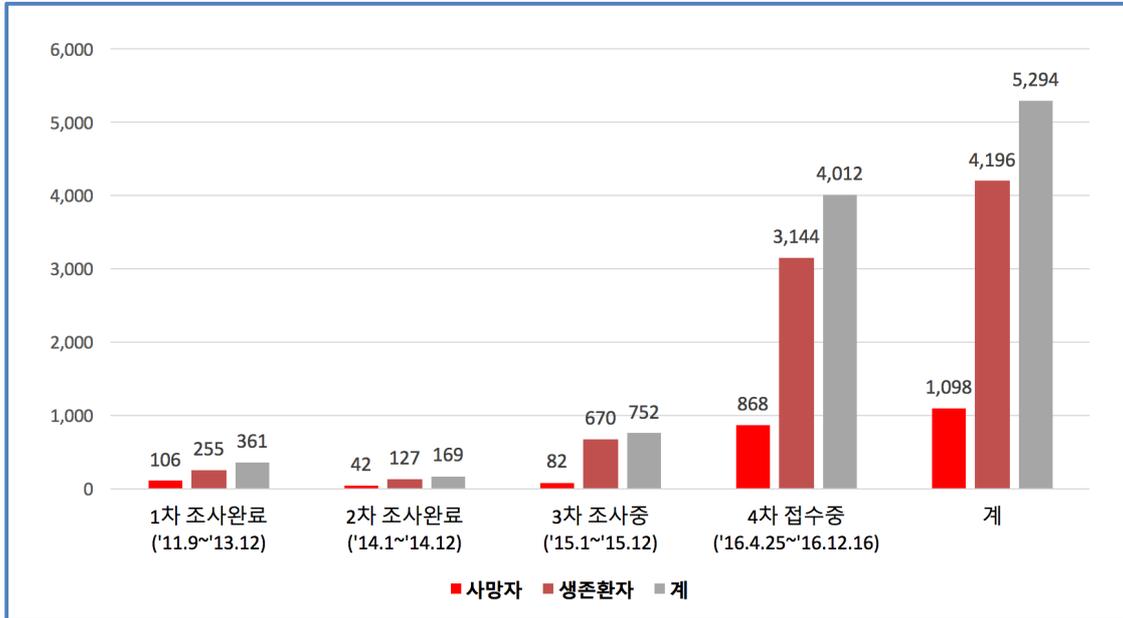
<표, 가습기살균제 정부신고 및 사망/판정 현황 2016년 12월16일 현재, 정리 환경보건시민센터>

구분	계	사망자			생존환자	담당 정부기관	관련성 판정여부		
		사망 (사망률)	판정당시 생존 판정후 사망	신고당시 생존 판정전 사망			판정	1-2단계/3-4단계	미판정
1차 조사 (2014년4월발표)	361	106 (29.3%)	2		25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361	172/189	0
2차 조사 (2015년4월발표)	169	42 (24.9%)	6		127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9	51/118	0
3차 조사중 (2015년말 접수분, 2016년8월 165명만 발표)	752	82 (10.9%)		2	670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5	35/130	587
4차 접수중 (*16.4.25~*16.12.16)	4,012	868 (21.6%)			3,14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4,012
계	5,294	1,098 (20.7%)	8	2	4,196		695	258/437	4,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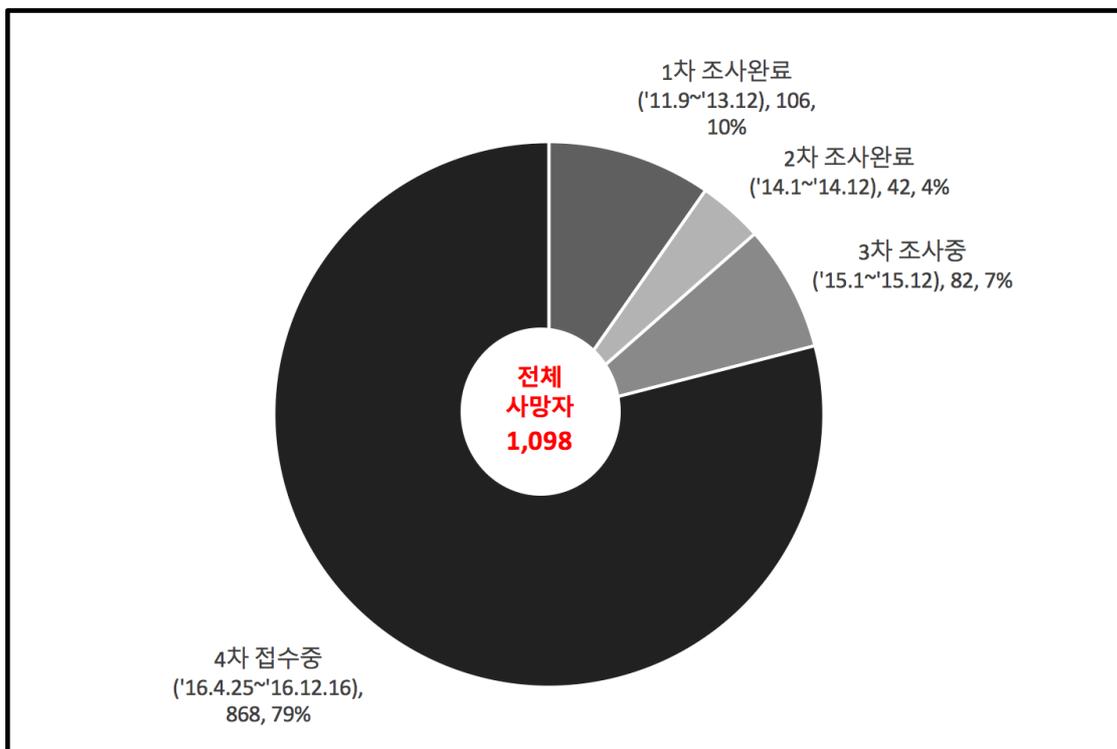
1.3 정부의 관련성 판정은 폐가 딱딱해지는 급성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에 대해서만 그동안 3 차례 이루어졌다. 모두 695 명에 대한 관련성을 판정했고 이는 전체 신고자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 4,012 명은 정부판정이 나오기까지 1-2 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1.4 판정결과는 정부의 폐손상기준에의 부합정도에 따라 1~4 단계로 나뉘는데 관련성이 거의확실 1 단계와 높음 2 단계에 대해서만 병원비 일부와 장례비 일부를 구상권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한다. 관련성이 낮은 3-4 단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현재 37% 258 명만이 1-2 단계이고 나머지 63% 437 명은 3-4 단계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판정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2011 년 역학조사 초기의 일부 경험에 국한되어 있다. 올해 뒤늦게 시작된 판정기준 개선연구에서는 이미 태아피해, 천식와 비염피해, 폐렴피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그밖에 특발성폐섬유화,

심장과 간손상, 기저질환자의 피해와 복합적 증상 그리고 암과 같은 만성피해도 피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차수별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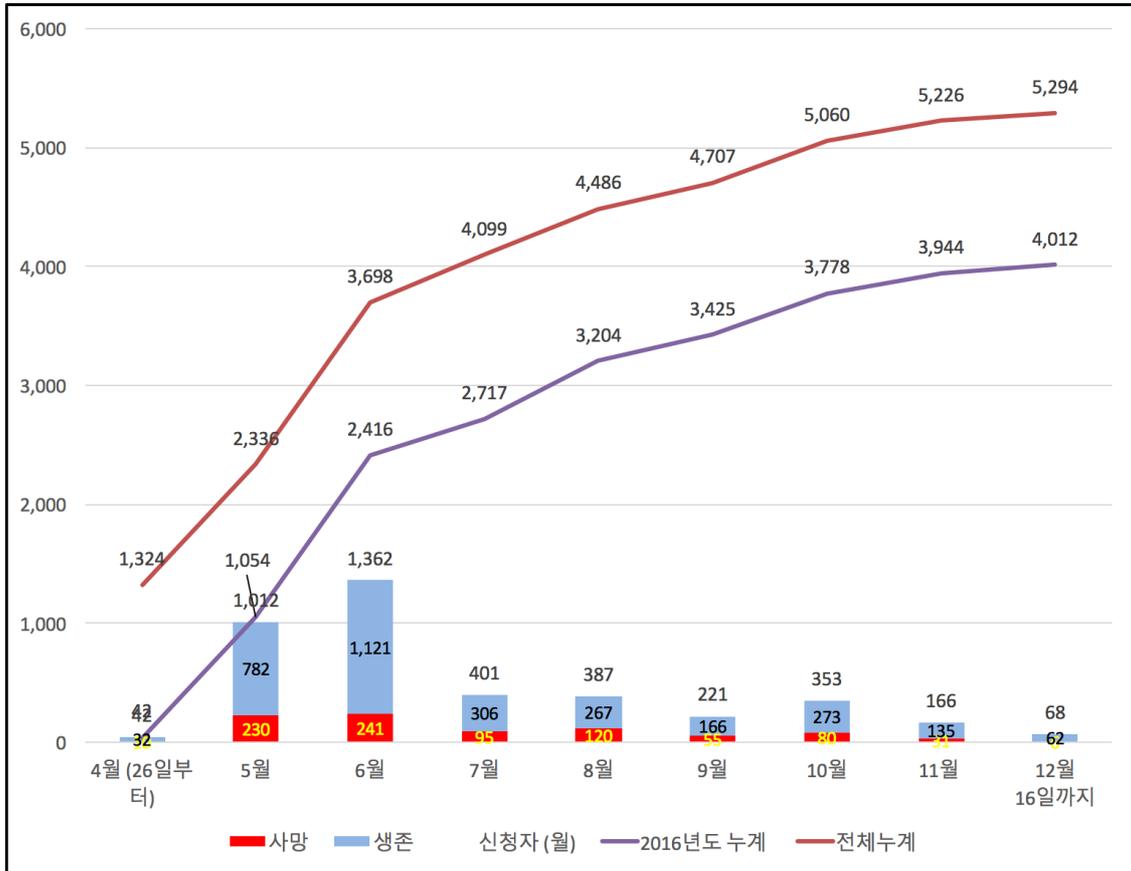
<그림, 신고차수별 가슴기살균제 사망자 현황>

2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2016 년도 현황 (12 월 16 일까지 현황)

2.1 **2016 년 한해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4,012 건으로 4 천건이 넘었다.** 정부가 올해 1 월부터 4 월까지 신고를 받지 않다가 4 월 26 일부터 받았고 12 월 16 일까지의 접수현황이므로 약 8 개월간의 피해신고현황이다. 올해 신고된 4,012 건은 전체 피해신고 5,294 건의 75.8%로 3 분의 2 에 해당한다.

2016년	4월 (26일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일까지
사망	10	230	241	95	120	55	80	31	6
생존	32	782	1,121	306	267	166	273	135	62
신청자(월)	42	1,012	1,362	401	387	221	353	166	68
신청자(일평균)	8	33	45	13	13	7	11	6	4
2016년도 누계	42	1,054	2,416	2,717	3,204	3,425	3,778	3,944	4,012
전체누계	1,324	2,336	3,698	4,099	4,486	4,707	5,060	5,226	5,294

<표, 2016 년도 가슴기살균제 월별 피해신고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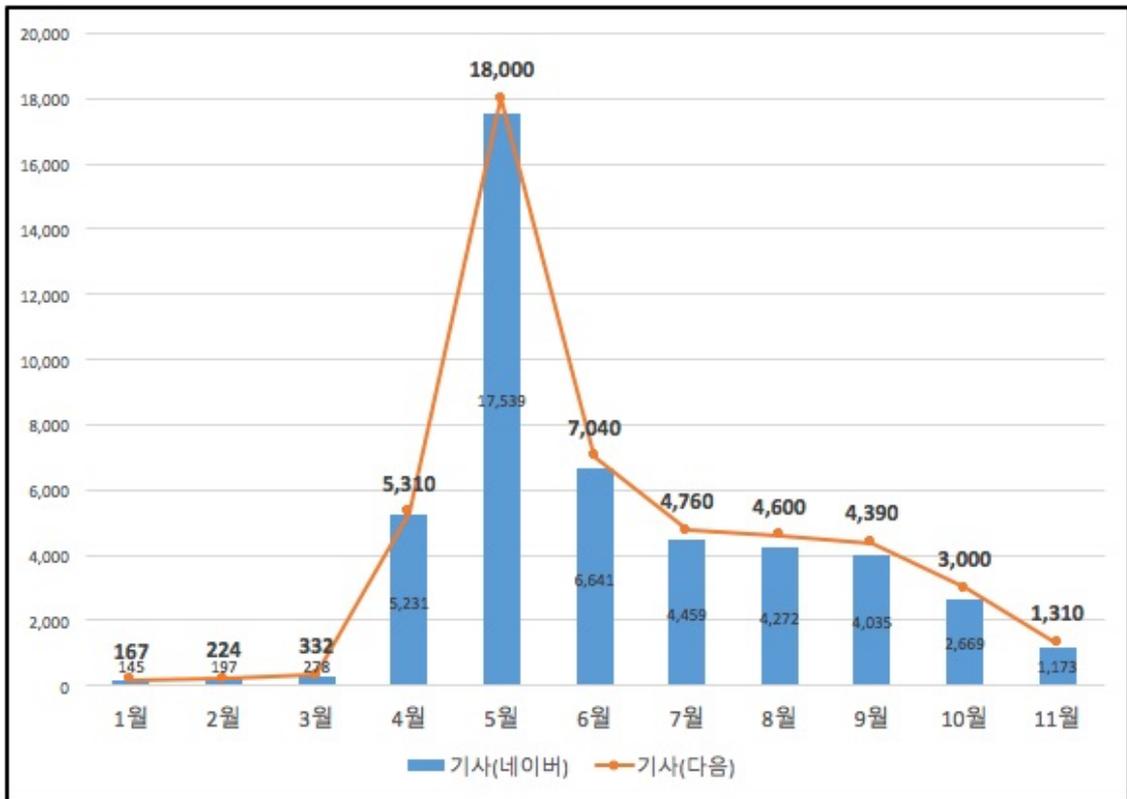


<그림, 2016 년도 가슴기살균제 월별 피해신고 현황 흐름 막대그래프 및 선그래프>

2.2 올해 월별 피해신고 흐름을 보면, 5-6 월에 1 천건이 넘었다. 6 월에 1,362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7 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매일 평균 4 건에서 13 건 사이에서 피해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언론보도와 피해신고 관련성

3.1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의 흐름은 언론보도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올해 1-3 월 거의 잠잠한 수준이었다가 4 월들어 늘어나기 시작해 5 월에는 무려 18,000 건으로 폭증했다. 아래 월별과 주간별 언론보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뉴스보도 횟수를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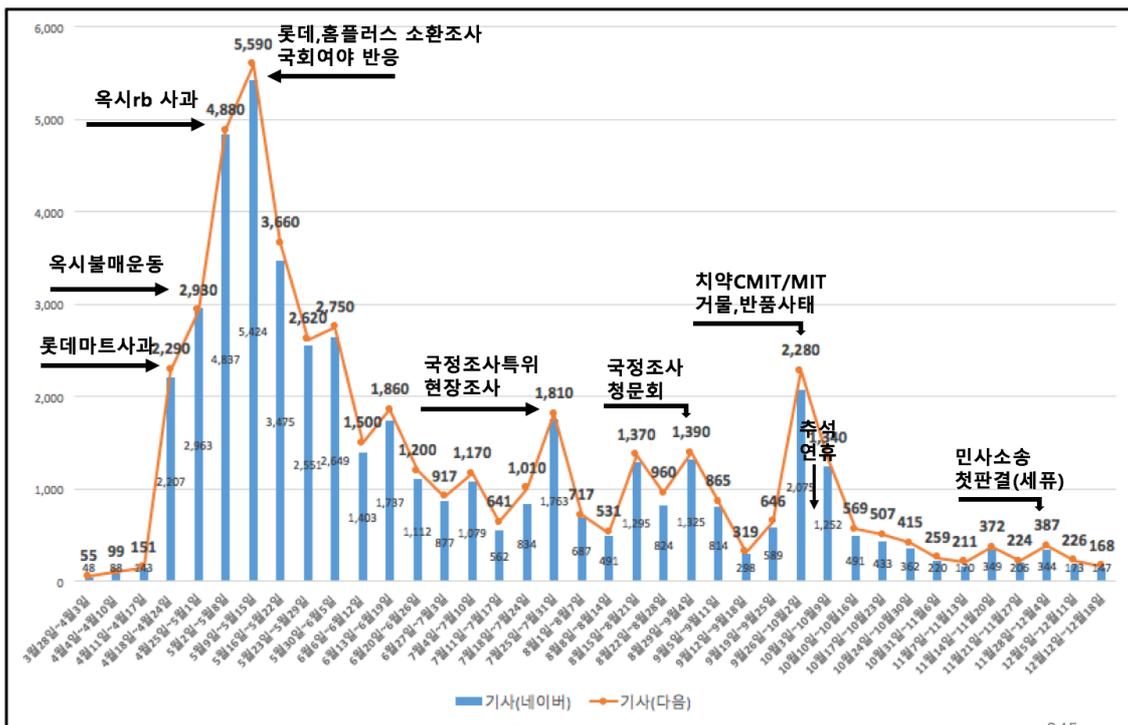
3.1.1 그런데 이러한 언론보도의 흐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5 월 언론보도가 최고치에 이르자 6 월에 피해신고가 피크에 달했다. 이후 언론보도가 줄어들자 피해신고도 따라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1.2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1994 년부터 2011 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많은 사용자와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망과

병원입원 등의 건강피해를 가슴기살균제와 연결시키지 못하다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관련성을 기억해내 신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2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신고전화만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첫째, 가슴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 년-2011 년 사이에 전국의 2-3 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슴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
- 둘째, 산후조리원, 요양원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슴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 셋째,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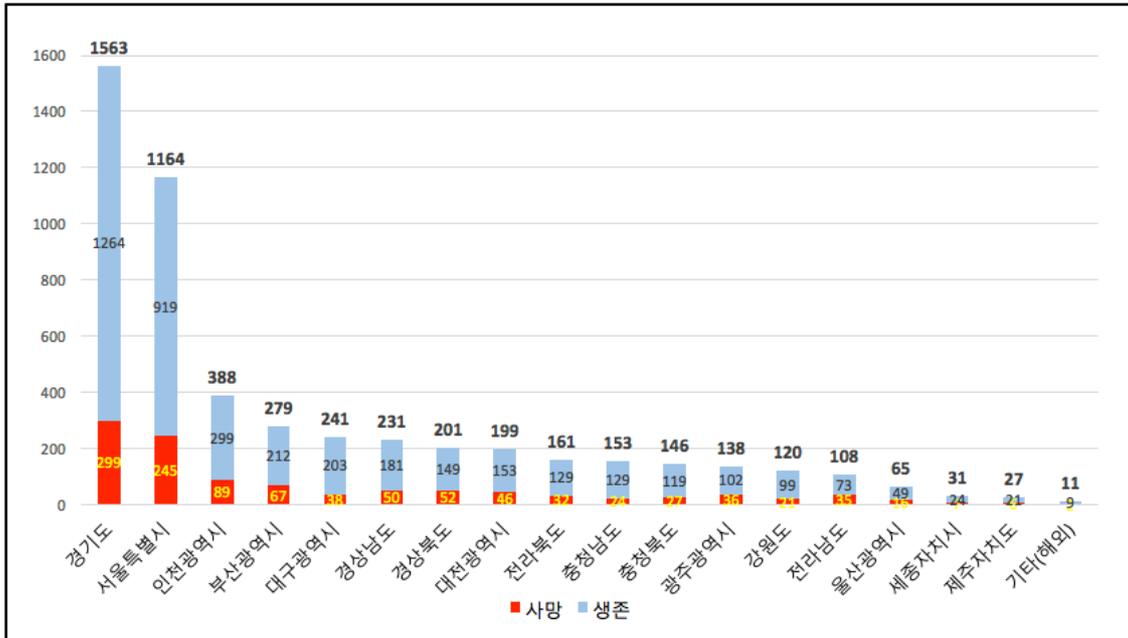


4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전국 지역별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4.1 전국 지역별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의 피해신고는 모두 5,226명(사망 1,092명)이다. 해외 포함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별 피해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가 1,563명(사망 299)로 가장 많고, 서울 1,164명(사망 245), 인천 288명(사망 89명)의 순서다.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피해가 신고되었다. 순서대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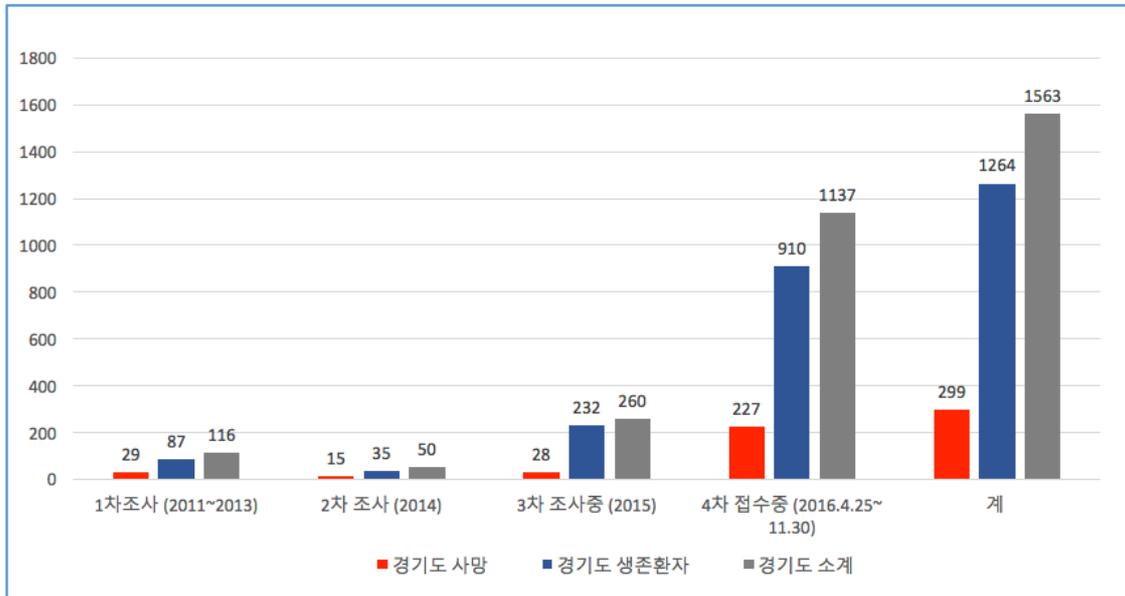
전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기타(해외)	계
사망	299	245	89	67	38	50	52	46	32	24	27	36	21	35	16	7	6	2	1092
생존	1264	919	299	212	203	181	149	153	129	129	119	102	99	73	49	24	21	9	4134
합계	1563	1164	388	279	241	231	201	199	161	153	146	138	120	108	65	31	27	11	5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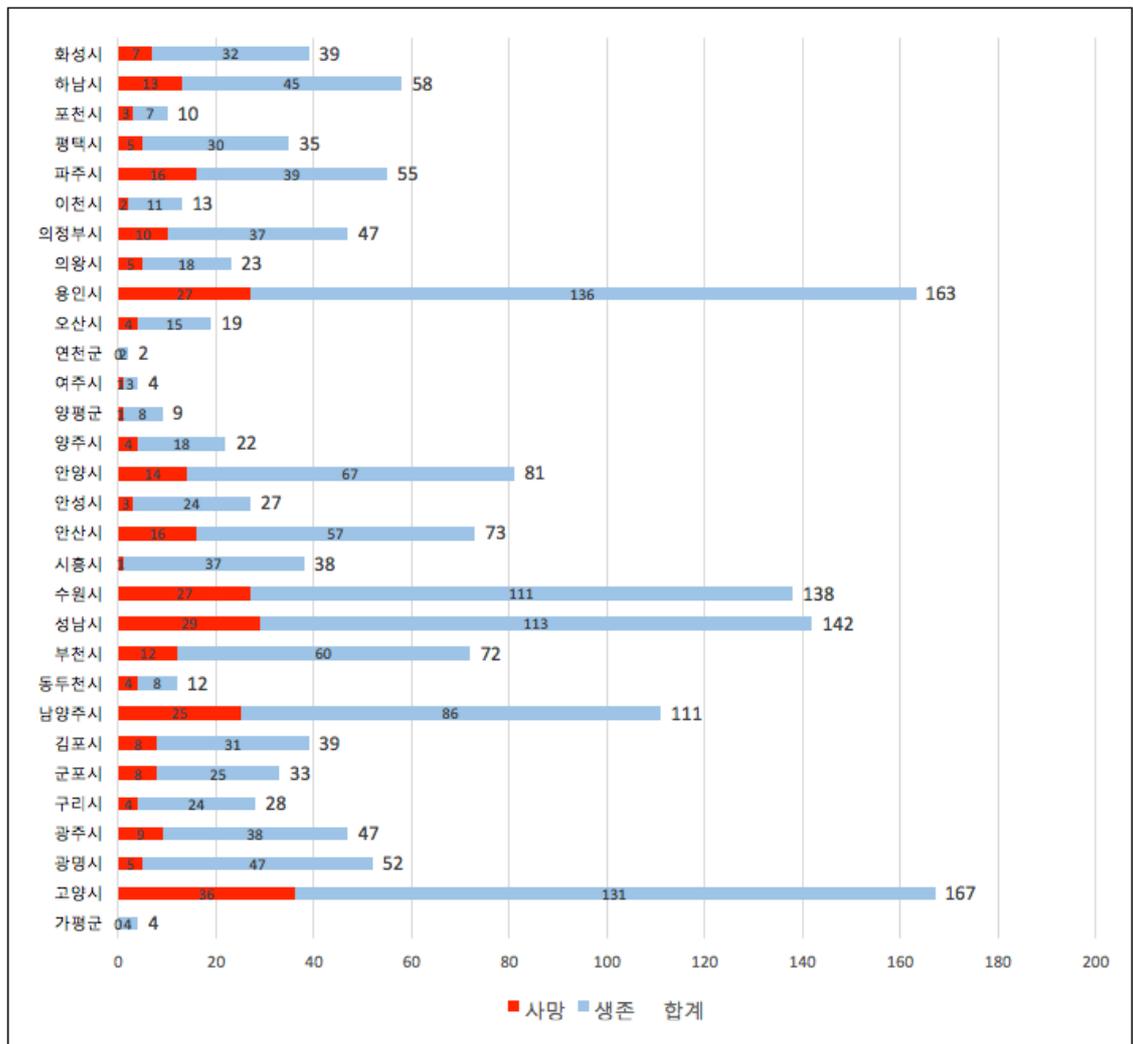
4.2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경기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3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경기도 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563 명이고 이중 사망은 299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 경기도 전체 피해접수의 72.7%에 해당했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고양시가 167 명(사망 36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10.9%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용인시가 163 명(사망 27 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성남시 142 명(사망 29 명), 수원시 138 명(사망 27 명)의 순서로 많았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경기도	사망	29	15	28	227	299
	생존환자	87	35	232	910	1264
	소계	116	50	260	1137	1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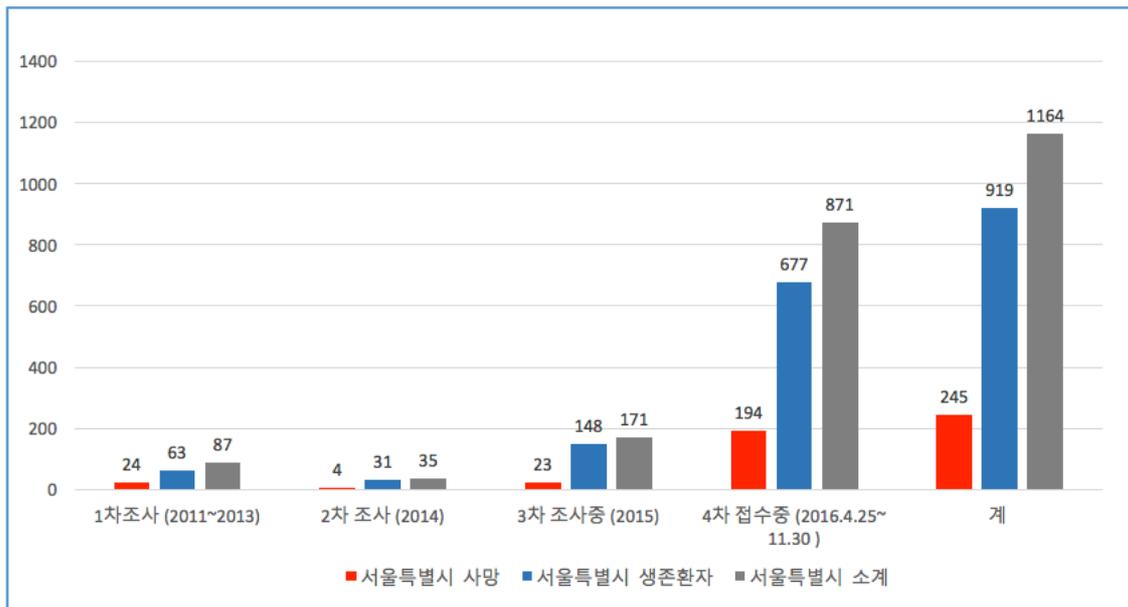
경기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계
사망	0	36	5	9	4	8	8	25	4	12	29	27	1	16	3	14	4	1	1	0	4	27	5	10	2	16	5	3	13	7	299
생존	4	131	47	38	24	25	31	86	8	60	113	111	37	57	24	67	18	8	3	2	15	136	18	37	11	39	30	7	45	32	1264
합계	4	167	52	47	28	33	39	111	12	72	142	138	38	73	27	81	22	9	4	2	19	163	23	47	13	55	35	10	58	39	1563



4.3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서울시의 피해신고는 전국의 22.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서울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164명이고 이중 사망은 245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서울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74.8%에 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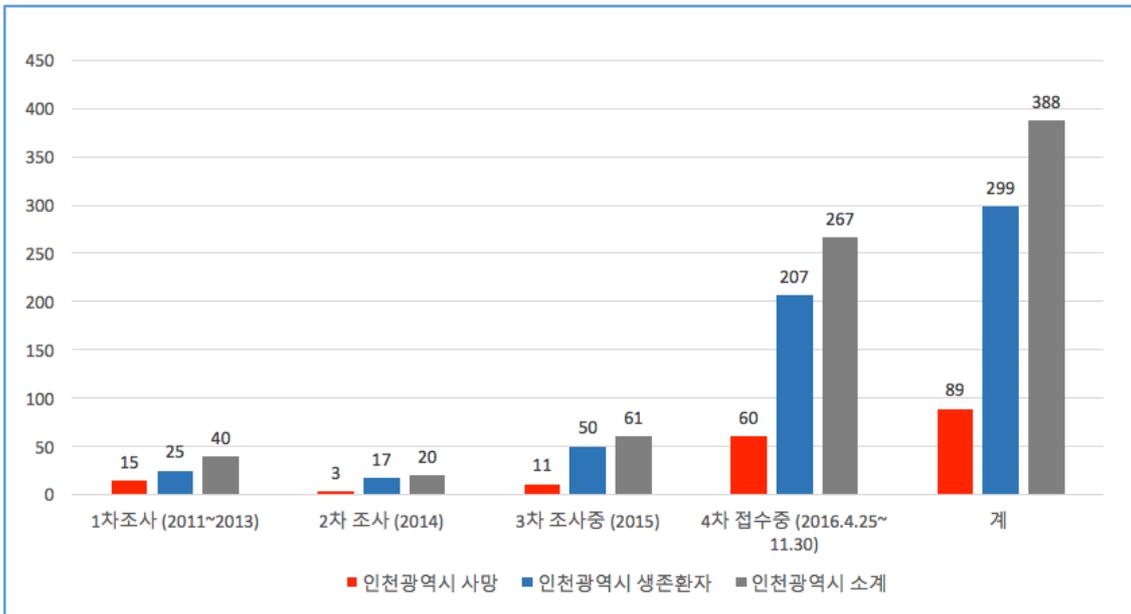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서울특별시	사망	24	4	23	194	245
	생존환자	63	31	148	677	919
	소계	87	35	171	871	1164



4.4 인천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인천시의 피해신고는 전국의 7.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인천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388명이고 이중 사망은 89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인천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68.8%에 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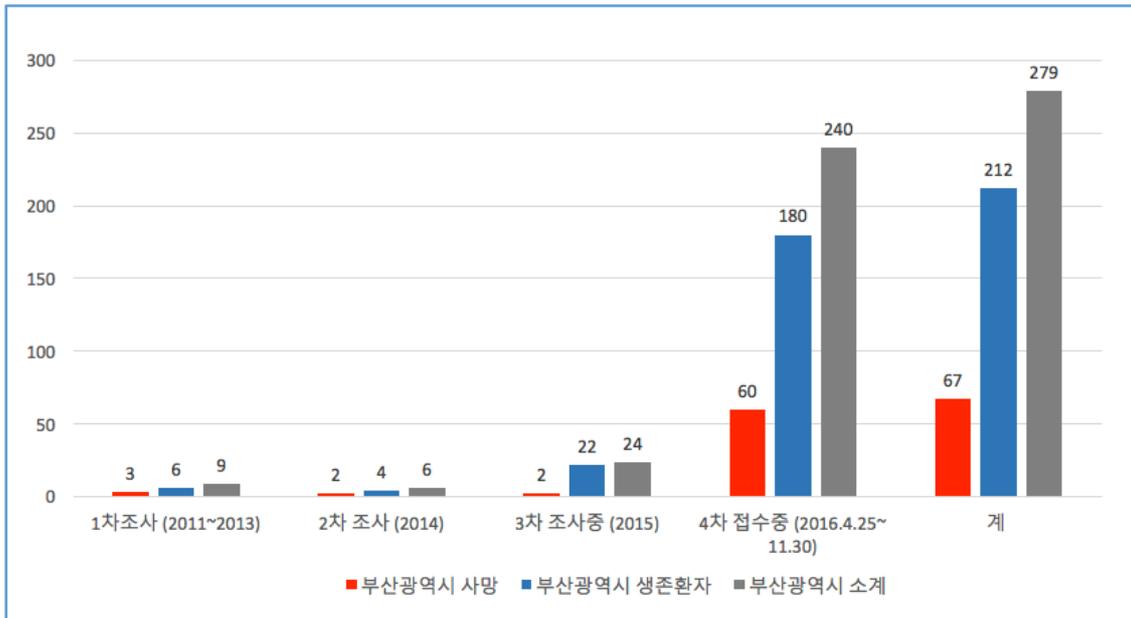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인천광역시	사망	15	3	11	60	89
	생존환자	25	17	50	207	299
	소계	40	20	61	267	388



4.5 부산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부산시의 피해신고는 전국의 5.3%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부산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79명이고 이중 사망은 67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부산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86%에 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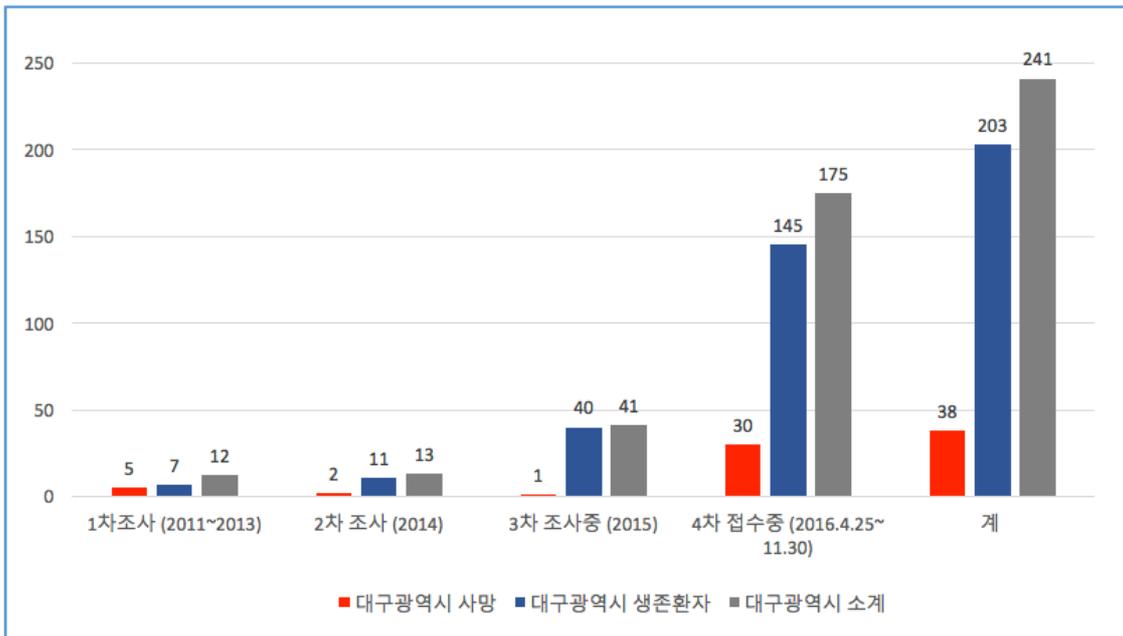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부산광역시	사망	3	2	2	60	67
	생존환자	6	4	22	180	212
	소계	9	6	24	240	279



4.6 대구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대구시의 피해신고는 전국의 4.6%로 전국광역시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부산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41명이고 이중 사망은 38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서울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72.6%에 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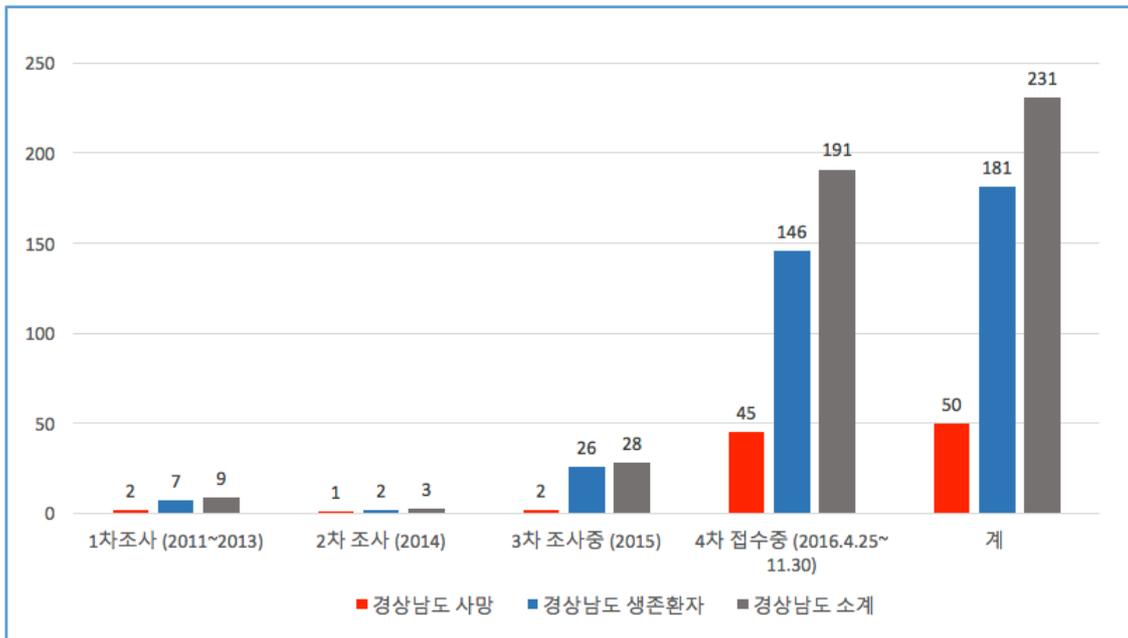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대구광역시	사망	5	2	1	30	38
	생존환자	7	11	40	145	203
	소계	12	13	41	175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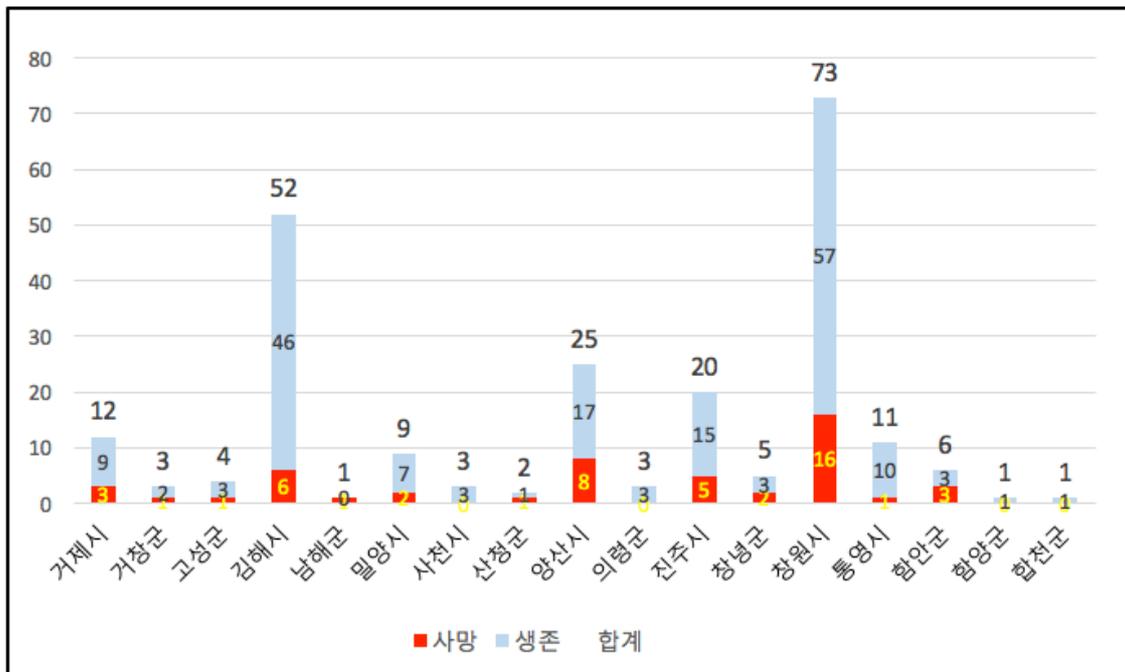
4.7 경상남도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경상남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4.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섯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경남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31명이고 이중 사망은 50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경남 전체 피해접수의 82.7%인 191명이다.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창원시가 73명(사망 16명)으로 경남도 전체의 31.6%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김해시가 52명(사망 6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양산시 25명(사망 8명), 진주시 20명(사망 5명)의 순서로 많았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경상남도	사망	2	1	2	45	50
	생존환자	7	2	26	146	181
	소계	9	3	28	191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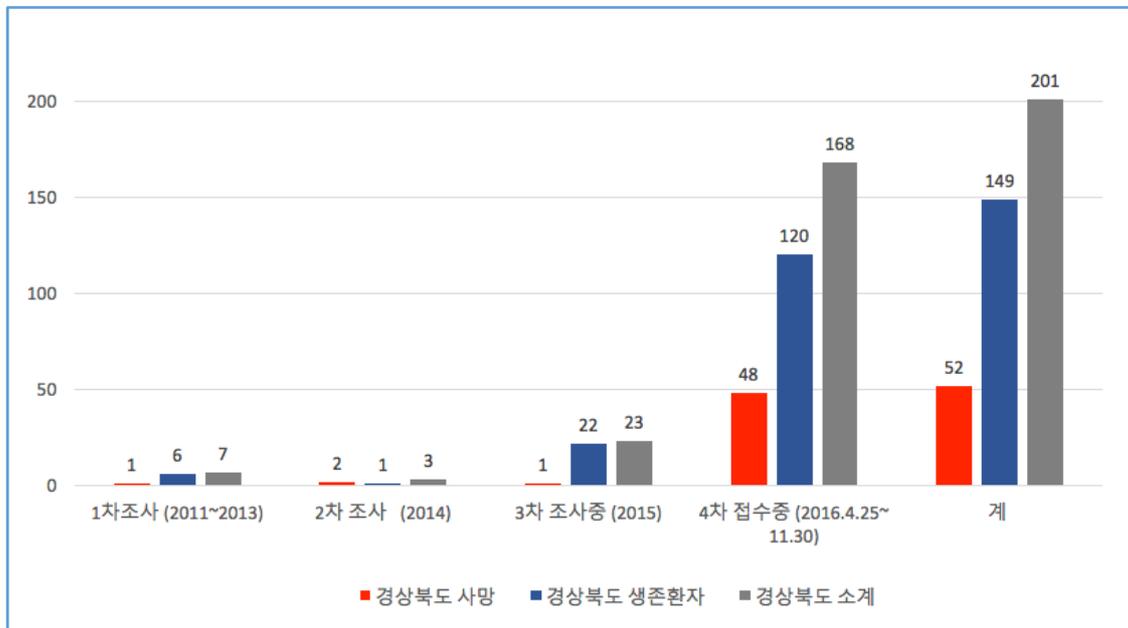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계
사망	3	1	1	6	1	2	0	1	8	0	5	2	16	1	3	0	0	50
생존	9	2	3	46	0	7	3	1	17	3	15	3	57	10	3	1	1	181
합계	12	3	4	52	1	9	3	2	25	3	20	5	73	11	6	1	1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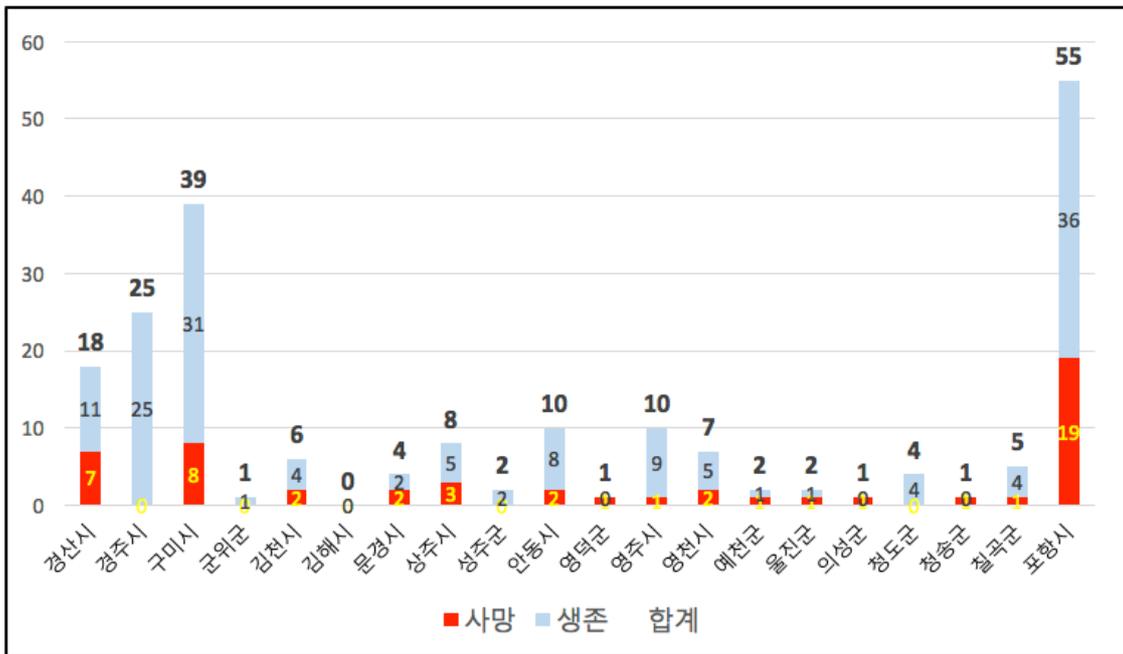
4.8 경상북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경상북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3.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일곱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경북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01명이고 이중 사망은 52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경북 전체 피해접수의 83.6%인 168명이다.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포항시가 55명(사망 19명)으로 경북 전체의 27.4%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구미시가 39명(사망 8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경주시 25명, 경산시 18명(사망 7명)의 순서로 많았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경상북도	사망	1	2	1	48	52
	생존환자	6	1	22	120	149
	소계	7	3	23	168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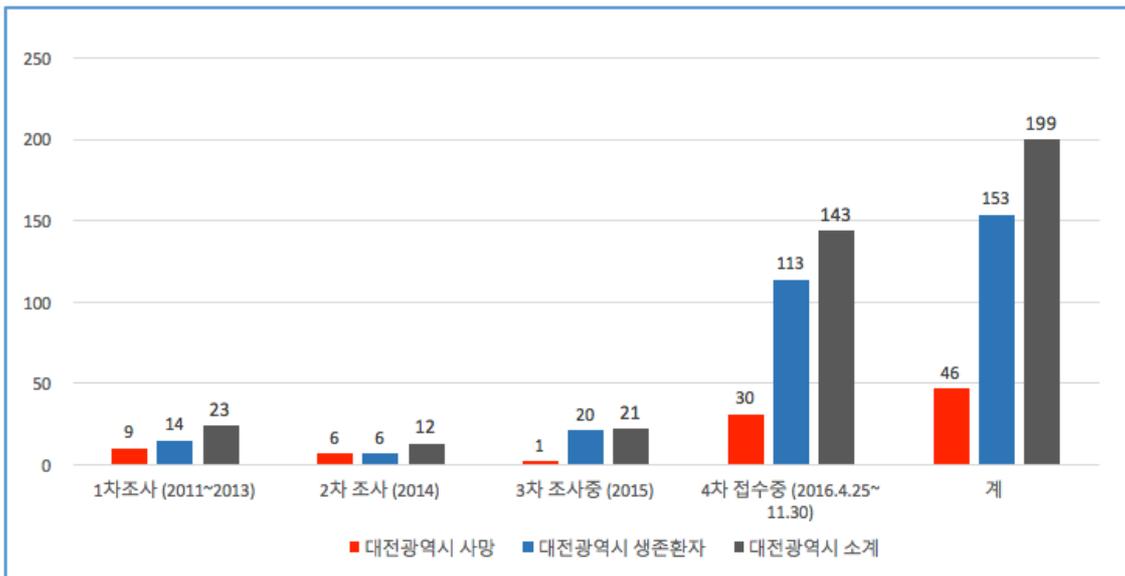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김해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계
사망	7	0	8	0	2	0	2	3	0	2	1	1	2	1	1	1	0	1	1	19	52
생존	11	25	31	1	4	0	2	5	2	8	0	9	5	1	1	0	4	0	4	36	149
합계	18	25	39	1	6	0	4	8	2	10	1	10	7	2	2	1	4	1	5	55	201



4.9 대전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대전시 피해신고는 전국의 3.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덟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대전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99명이고 이중 사망은 46명이다. 사망률은 23.1%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대전 전체 피해접수의 71.9%인 14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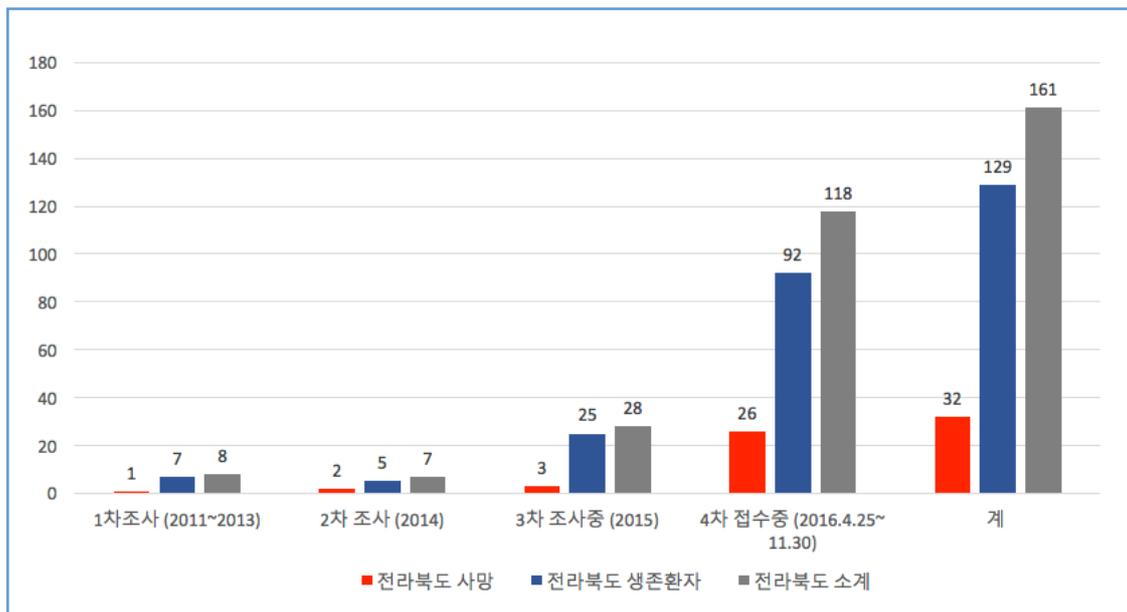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대전광역시	사망	9	6	1	30	46
	생존환자	14	6	20	113	153
	소계	23	12	21	143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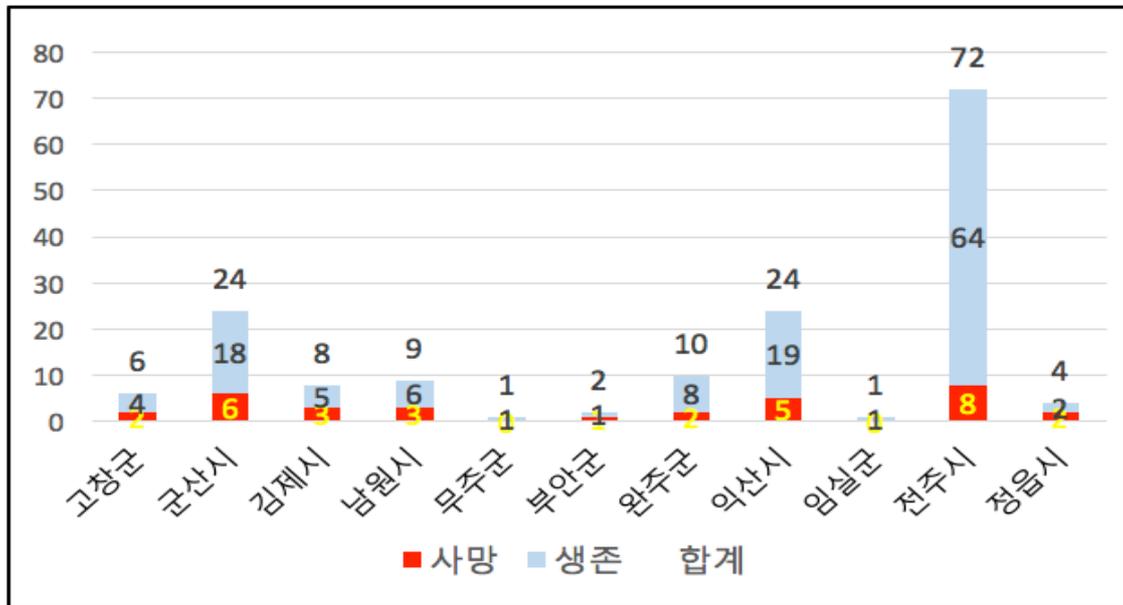
4.10 전라북도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전라북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3.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아홉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61명이고 이중 사망은 32명이다. 사망률은 19.9%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전북 전체 피해접수의 73.3%인 118명이다. 전북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주시가 72명(사망 8명)으로 전북도 전체의 44.7%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군산시 24명(사망 6명), 익산시 24명(사망 5)로 많았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전라북도	사망	1	2	3	26	32
	생존환자	7	5	25	92	129
	소계	8	7	28	118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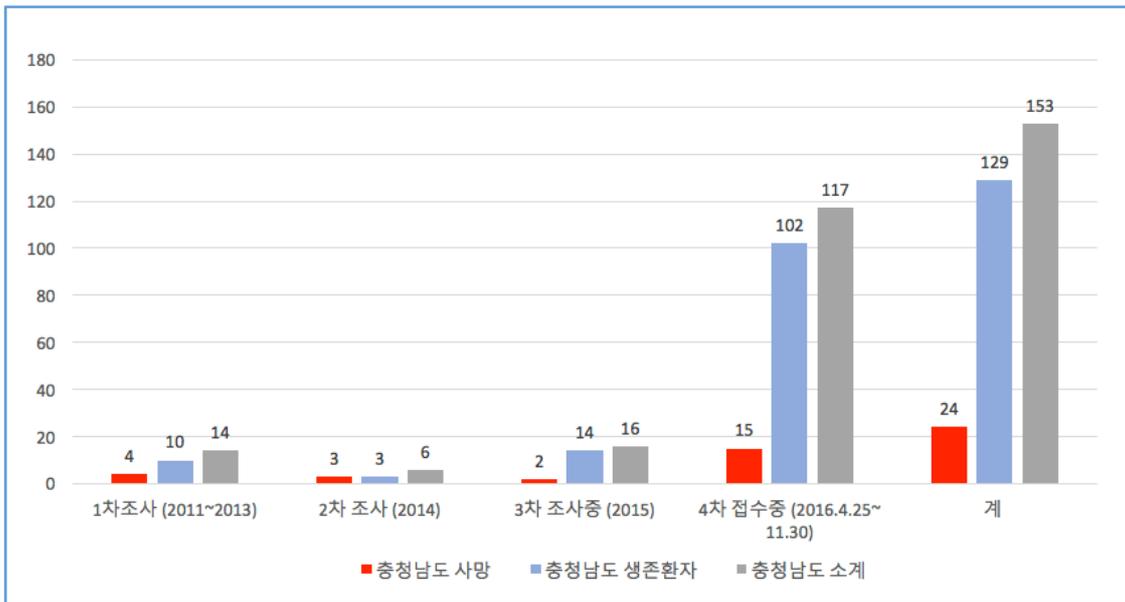
전북	고창 군	군산 시	김제 시	남원 시	무주 군	부안 군	완주 군	익산 시	임실 군	전주 시	정읍 시	계
사망	2	6	3	3	0	1	2	5	0	8	2	32
생존	4	18	5	6	1	1	8	19	1	64	2	129
합계	6	24	8	9	1	2	10	24	1	72	4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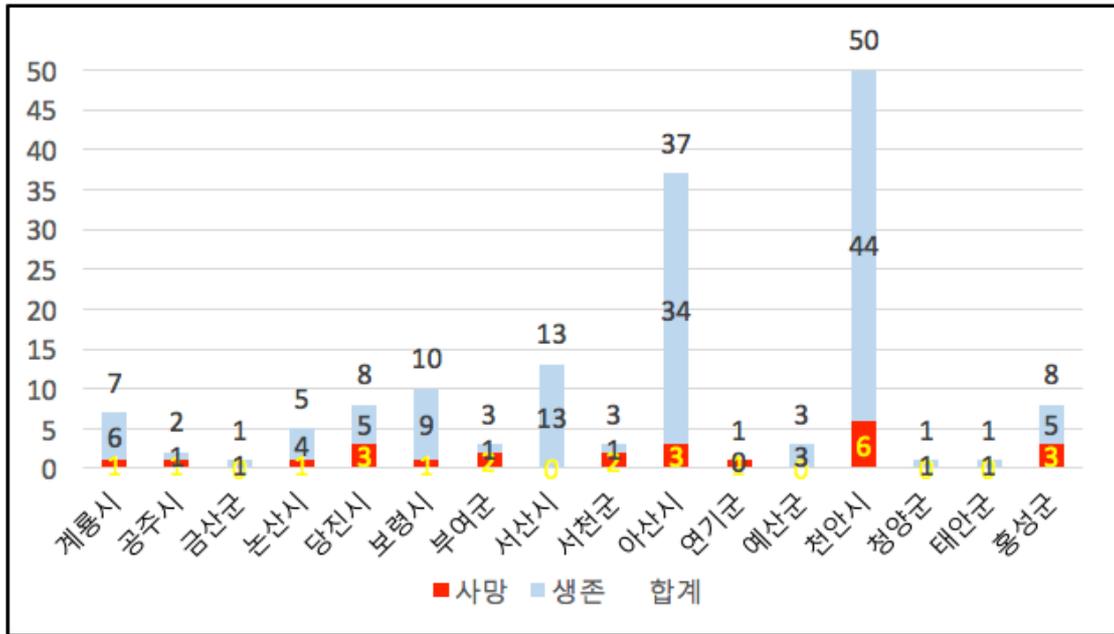
4.11 충청남도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충청남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2.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열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충남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53명이고 이중 사망은 24명이다. 사망률은 15.7%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충남 전체 피해접수의 76.5%인 117명이다.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천안시가 56명(사망 6명)으로 충남 전체의 36.6%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아산시 37명(사망 3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충청남도	사망	4	3	2	15	24
	생존환자	10	3	14	102	129
	소계	14	6	16	117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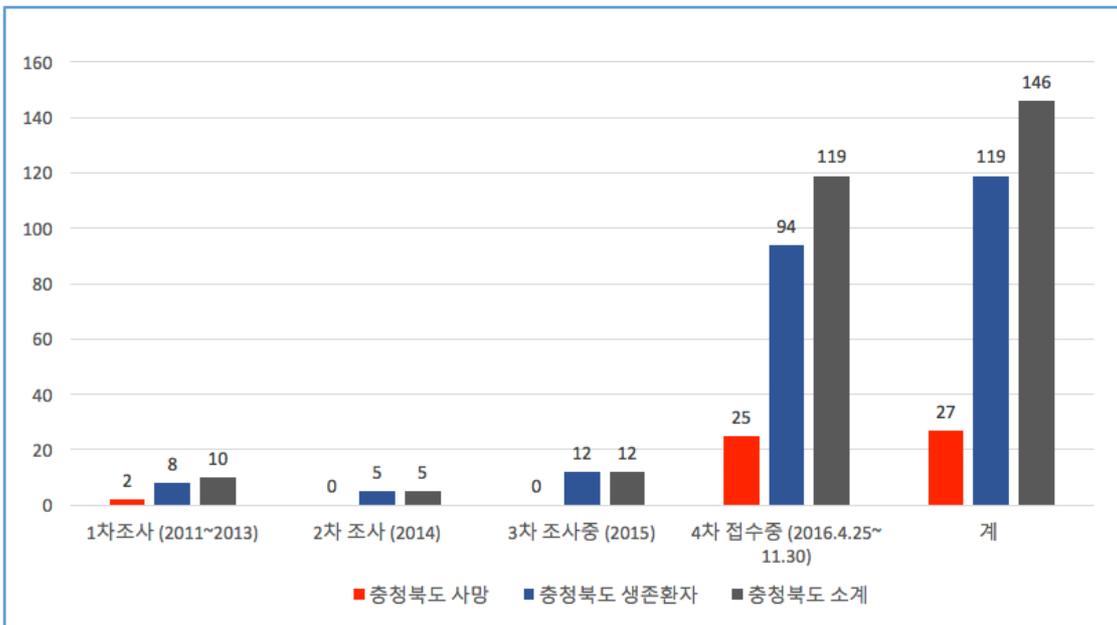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계
사망	1	1	0	1	3	1	2	0	2	3	1	0	6	0	0	3	24
생존	6	1	1	4	5	9	1	13	1	34	0	3	44	1	1	5	129
합계	7	2	1	5	8	10	3	13	3	37	1	3	50	1	1	8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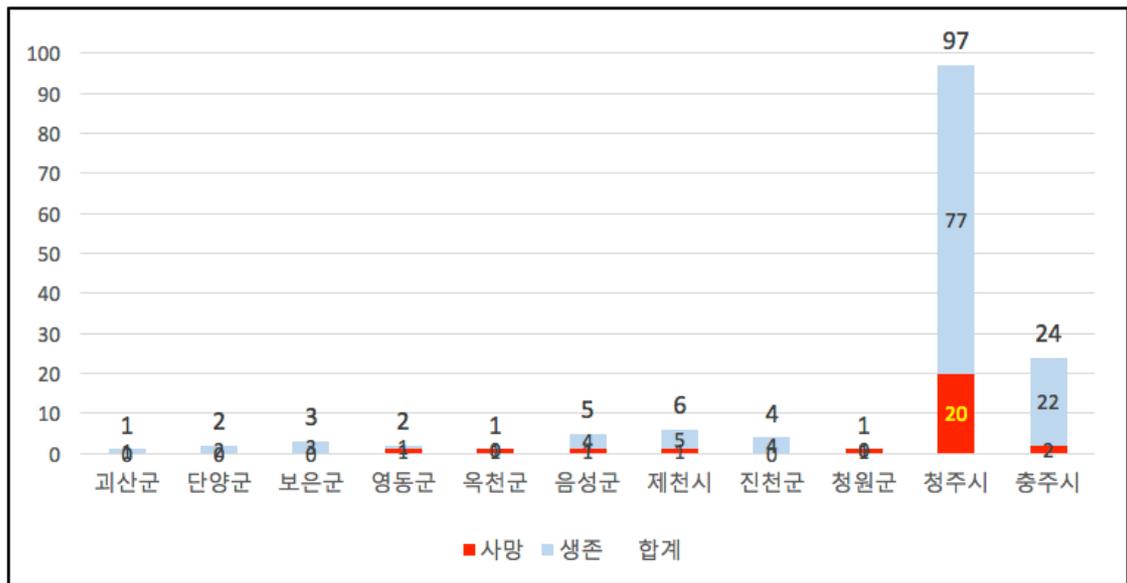
4.12 충청북도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충청북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2.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열한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충북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46명이고 이중 사망은 27명이다. 사망률은 18.5%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충북 전체 피해접수의 81.5%인 119명이다.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청주시가 97명(사망 24명)으로 충북도 전체의 66.4%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충주시가 24명(사망 2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충청북도	사망	2	0	0	25	27
	생존환자	8	5	12	94	119
	소계	10	5	12	119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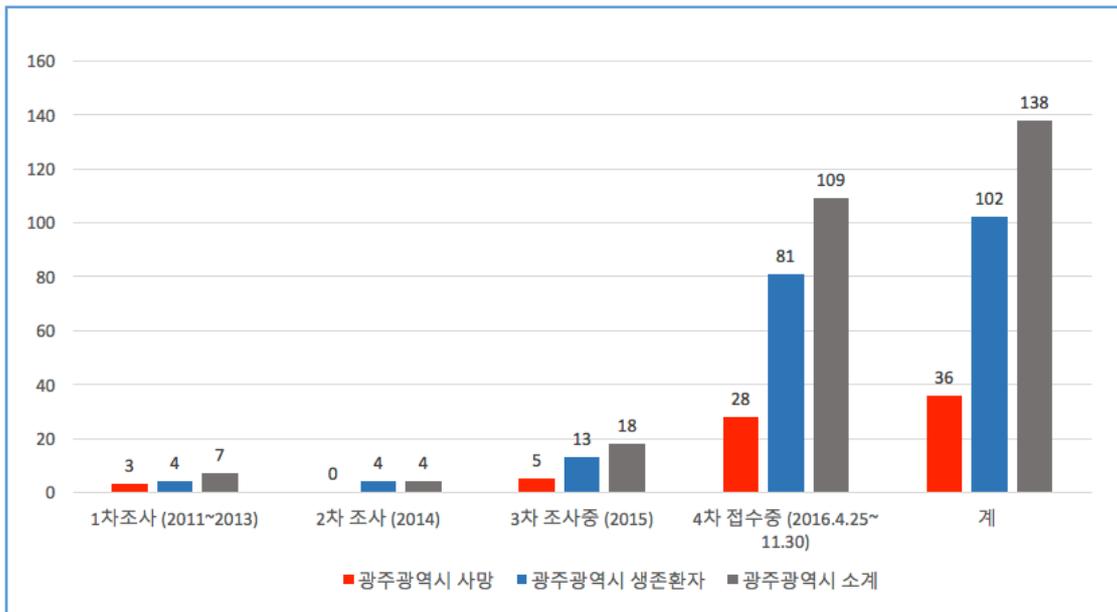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주시	계
사망	0	0	0	1	1	1	1	0	1	20	2	27
생존	1	2	3	1	0	4	5	4	0	77	22	119
합계	1	2	3	2	1	5	6	4	1	97	24	146



4.13 광주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광주시 피해신고는 전국의 2.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열두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광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38명이고 이중 사망은 36명이다. 사망률은 26%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광주 전체 피해접수의 79%인 10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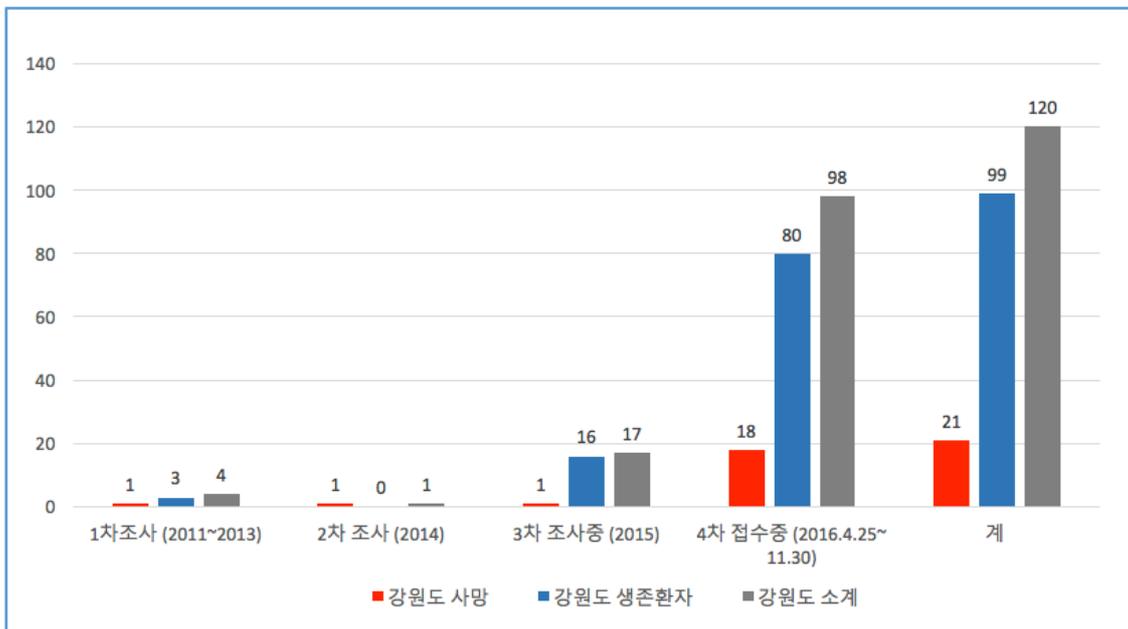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광주광역시	사망	3	0	5	28	36
	생존환자	4	4	13	81	102
	소계	7	4	18	109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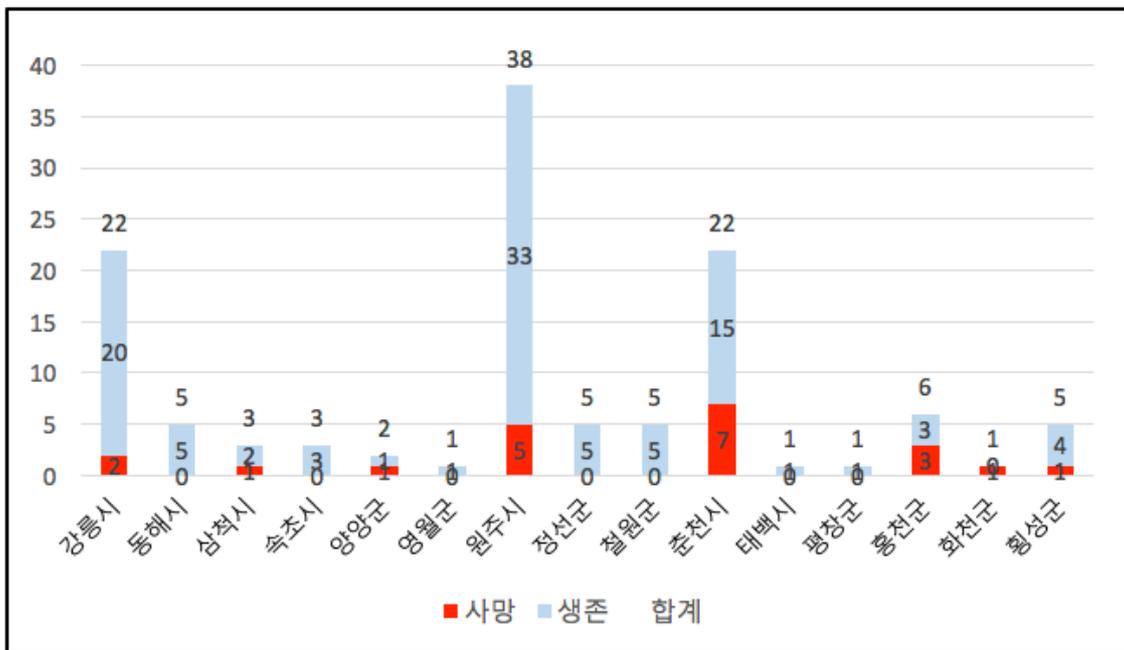
4.14 강원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강원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2.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열세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20명이고 이중 사망은 21명이다. 사망률은 17.5%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강원 전체 피해접수의 81.7%인 98명이다.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원주시가 38명(사망 5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31.7%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춘천시 22명(사망 7명), 강릉시 22명(사망 2명)으로 많았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강원도	사망	1	1	1	18	21
	생존환자	3	0	16	80	99
	소계	4	1	17	98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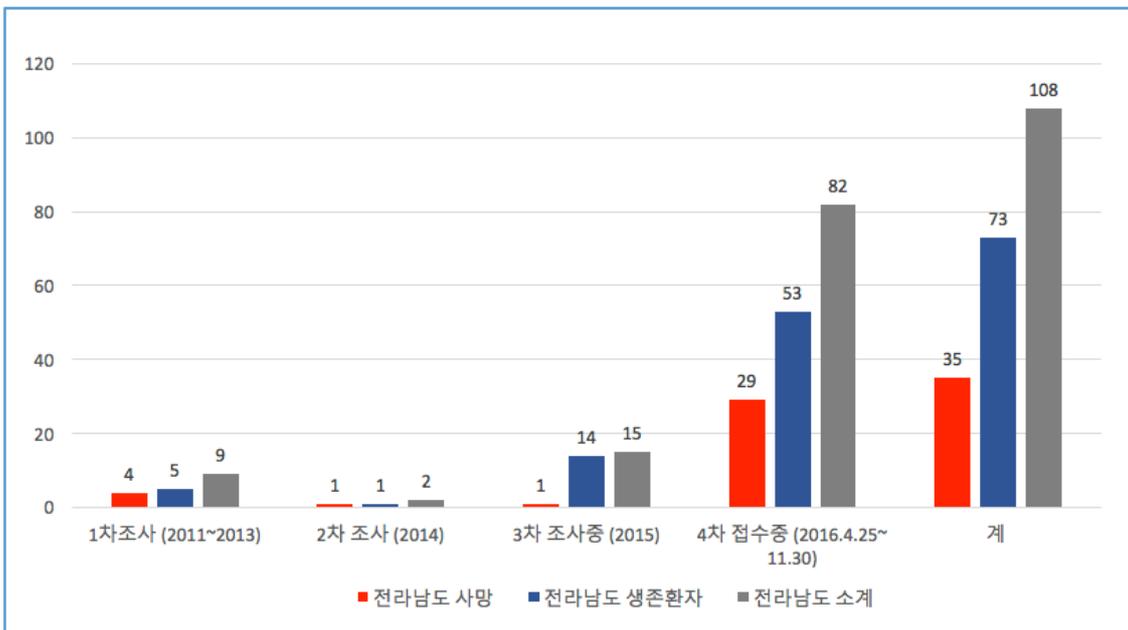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계
사망	2	0	1	0	1	0	5	0	0	7	0	0	3	1	1	21
생존	20	5	2	3	1	1	33	5	5	15	1	1	3	0	4	99
합계	22	5	3	3	2	1	38	5	5	22	1	1	6	1	5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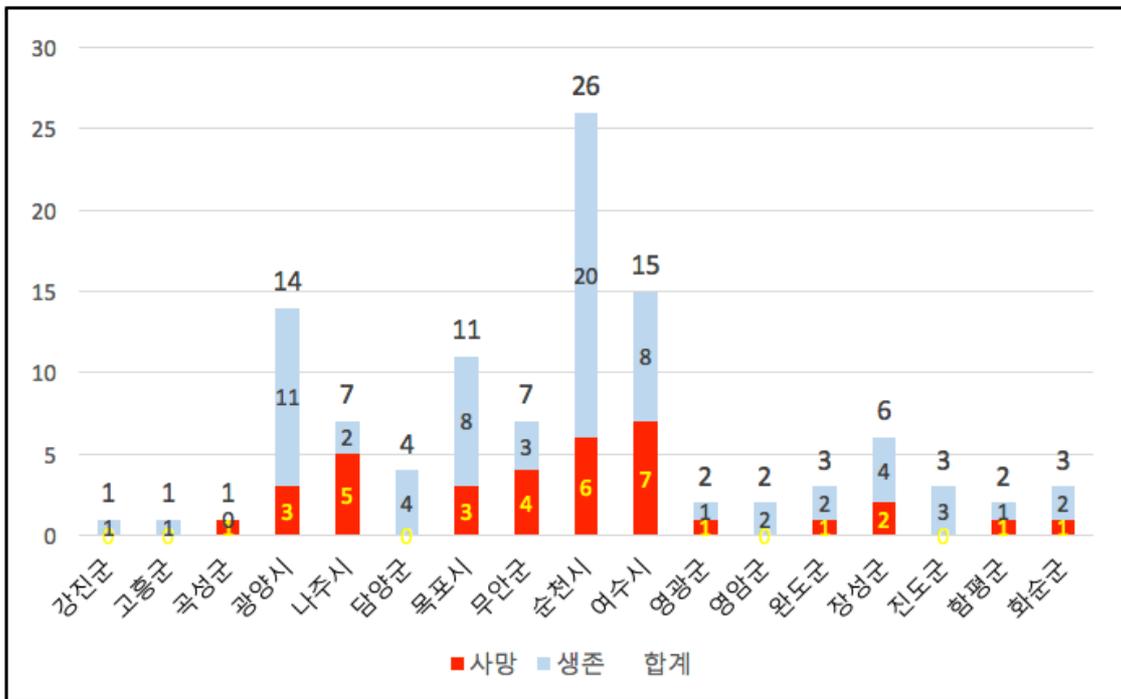
4.15 전라남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전라남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2.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열네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전남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108명이고 이중 사망은 35명이다. 사망률은 32.4%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전남 전체 피해접수의 75.9%인 82명이다.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순천시가 26명(사망 6명)으로 전남 전체의 24.1%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여수시 15명(사망 7명), 광양시 14명(사망 3명)의 순서로 많았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전라남도	사망	4	1	1	29	35
	생존환자	5	1	14	53	73
	소계	9	2	15	82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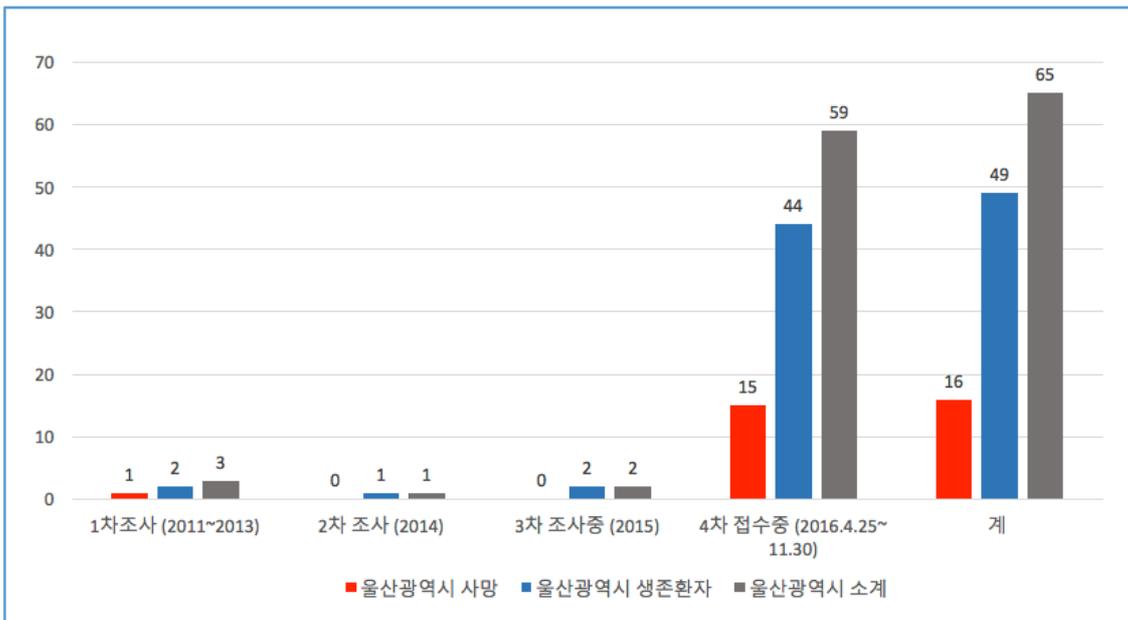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계
사망	0	0	1	3	5	0	3	4	6	7	1	0	1	2	0	1	1	35
생존	1	1	0	11	2	4	8	3	20	8	1	2	2	4	3	1	2	73
합계	1	1	1	14	7	4	11	7	26	15	2	2	3	6	3	2	3	108



4.16 울산시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울산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65명이고 이중 사망은 16명이다. 사망률은 24.6%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울산 전체 피해접수의 90.8%인 5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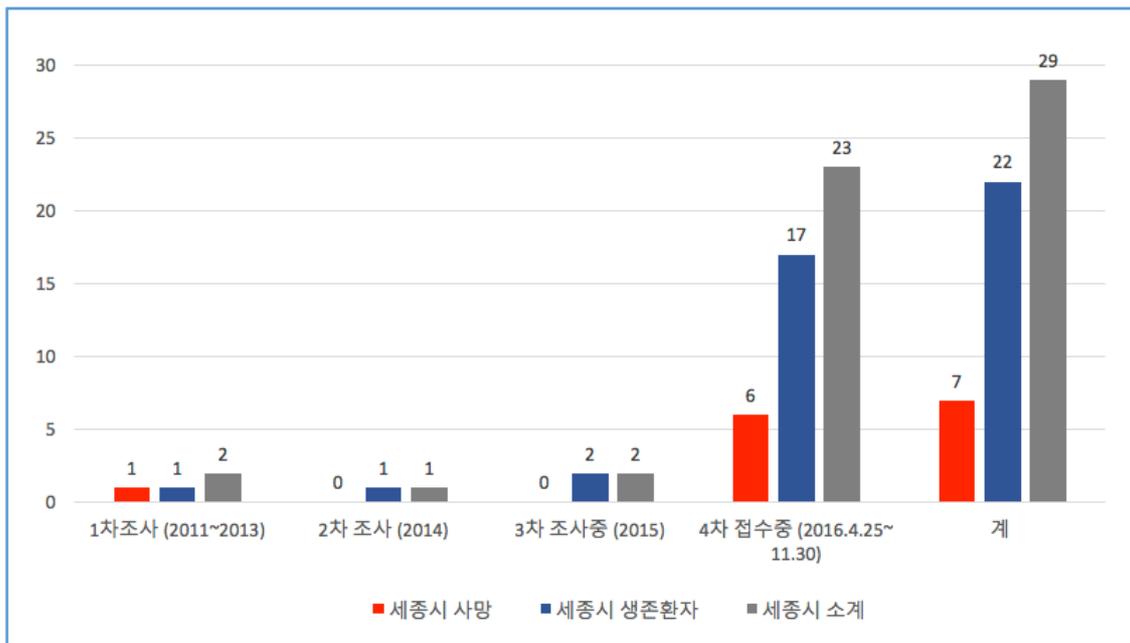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울산광역시	사망	1	0	0	15	16
	생존환자	2	1	2	44	49
	소계	3	1	2	59	65



4.17 세종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세종시 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9명이고 이중 사망은 7명이다. 사망률은 24.1%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세종 전체 피해접수의 79.3%인 2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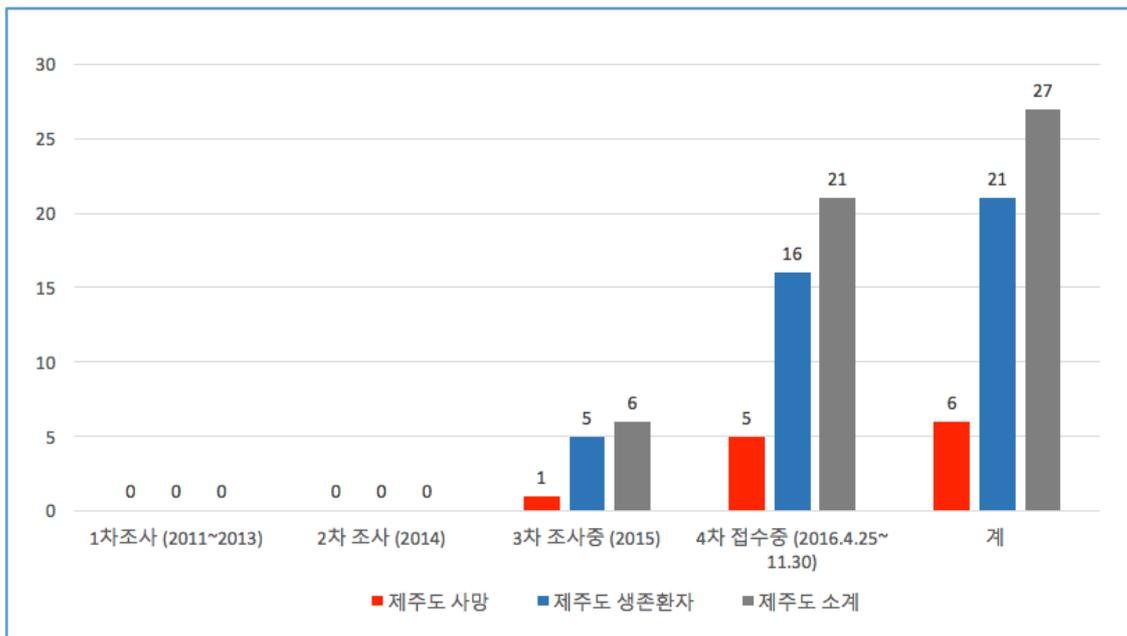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세종시	사망	1	0	0	6	7
	생존환자	1	1	2	17	22
	소계	2	1	2	23	29



4.18 제주도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7명이고 이중 사망은 6명이다. 사망률은 22.2%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제주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명이다.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신고현황을 보면 제주시 21명(사망 4명), 서귀포시 6명(사망 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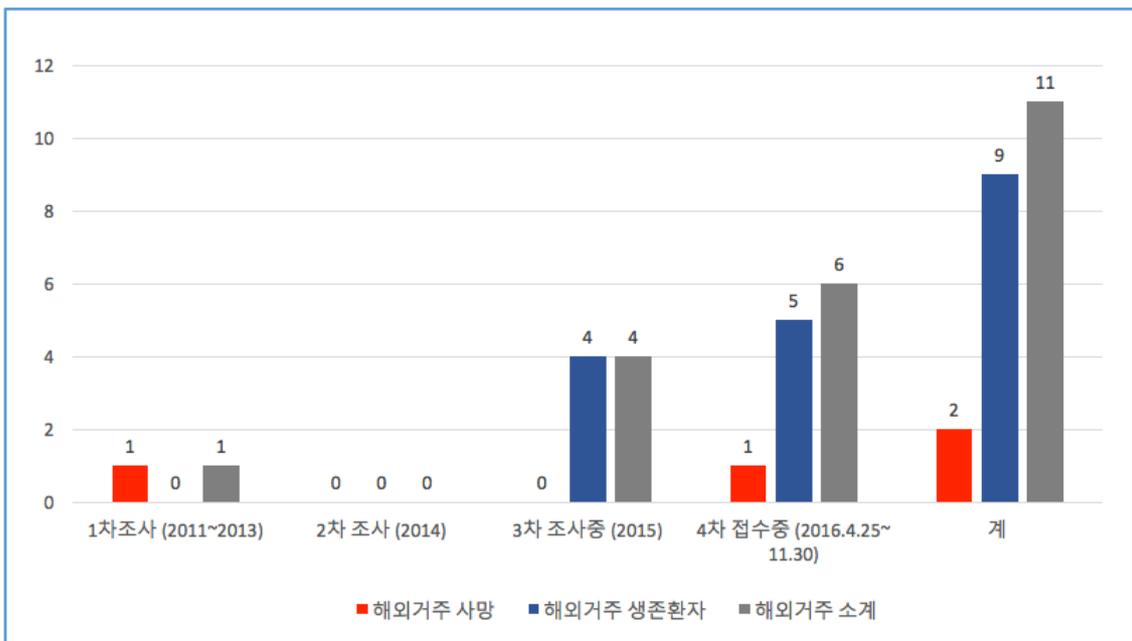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제주도	사망	0	0	1	5	6
	생존환자	0	0	5	16	21
	소계	0	0	6	21	27



4.19 해외 거주자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현황)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해외거주자의 피해신고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은 2명이다. 사망률은 18.2%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해외거주자 전체 피해접수의 54.5%인 6명이다. 거주 국가별 신고현황을 보면, 캐나가 7명(사망 1)으로 가장 많고, 미국 2명, 뉴질랜드 1명 등 3개국가이다. 이들은 해외로 이민간 교포로서 한인수퍼 등에서 가슴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거나, 국내에서 살면서 가슴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에서 살면서 피해신고를 한 경우들이다. 미국에 사는 한 교포의 경우 로스엔젤레스 한인수퍼에서 애경 가슴기메이트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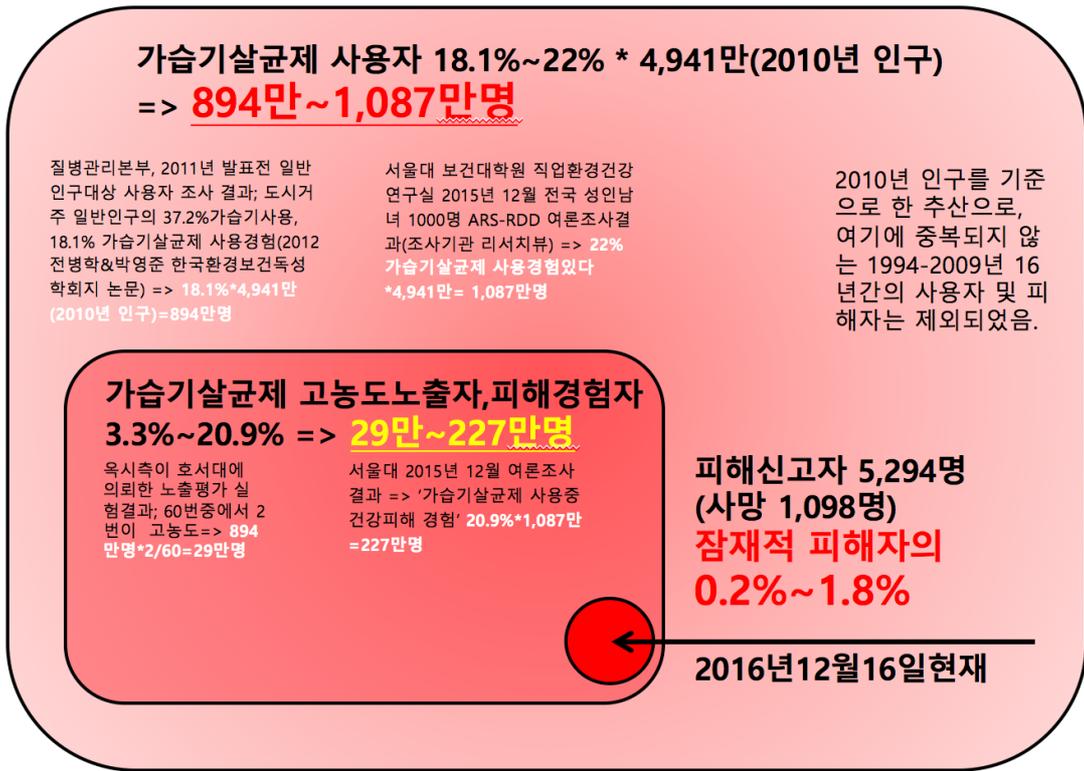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 11.30)	계
해외거주	사망	1	0	0	1	2
	생존환자	0	0	4	5	9
	소계	1	0	4	6	11



5 특별법 제정해 모든 피해자 찾아내고 피해대책 세워야 한다.

5.1 현재 피해신고 5,294 명은 잠재적 피해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는 약 1 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잠재적인 피해자는 29 만명에서 227 만명에 달한다. 12 월 16 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도 많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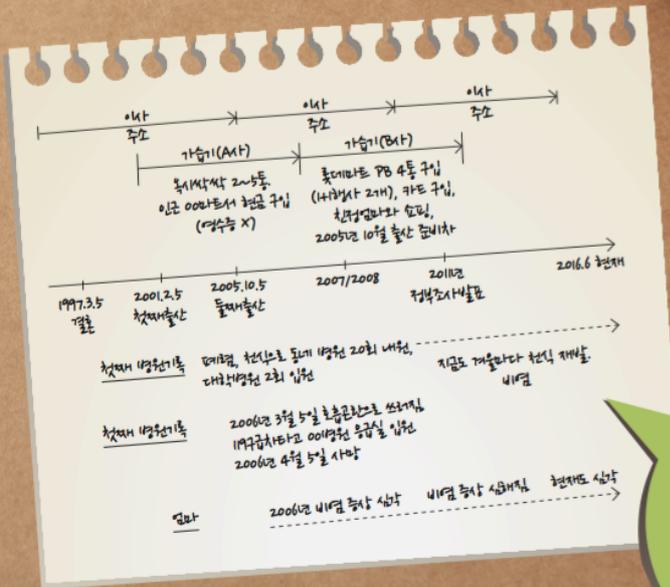
환경보건시민센터

5.2 특별법 제정해 모든 피해자 찾아내고 피해대책 세워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 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찾기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특별조사기구는 개인과 조사대상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원, 제조판매사 및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1994 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1 년에 판매가 중단되어 법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활동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도 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하세요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런데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떡하죠?”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껴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전화 **02-741-2700**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환경환경산업기술원
 전화 **02-3800-575**
 relidf@keiti.re.kr